여야 4·29 재보선 후폭풍 속으로

한나라 '쇄신론' 방향·폭 등 시각차…내홍 조짐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정세균-정동영 대리전

여야가 4·29 재보궐 선거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쇄신론이 부상하면서 당 전체가 요동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을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간의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에는 '쇄신론'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4일 당내 개혁성향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민본 21'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기조 쇄신, 당정청 인적 개편, 당 화합'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중산층과 서민들로부터 위화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치우친 정책기조를 바로잡아야 하며, 청와대 참모와 내각에 대한 인사개편과 함께 내부 화합을 위해 정파 구별 없는 인재의 기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직 정비를 위한 당헌 및 당규 개정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쇄신론이 결코 소장파만의 의견이 아님을 나타냈다.

또, 서울 출신 의원들도 4일 모임을 가진데 이어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도 6일 모임을 갖고 당 쇄신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져 쇄신론이 여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쇄신론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침묵의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세력을 인정하고 여권의 에너지로 수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다.

방법론으로는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정치 일선 일보 후퇴와 친박(친 박근혜)을 대변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의 원내대표 진출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권력의 역학구도가 뿌리째 흔들리는데다 국정 운영 기조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권 수뇌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점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단 집권 여당의 진용을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친박 포용'을 제한적으로 포함하는 작업이 현재로서는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도 재보선 결과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장 오는 15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주류에서는 수도권 3선인 김부겸 의원으로 정리된 모습이다. '국회내 의회주의 복원'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김 의원은 정동영 의원의 복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수도권 3선으로,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 공동대표인 이종걸 의원은 '철저한 당 쇄신'과 '선명 야당'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의원은 정 의원의 복당과 관련, "정 의원의 무소속 당선은 지도부의 공천배제가 당원과 국민의 뜻과는 배치됐다는 반증"이라며 복당론을 적극 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원내대표에 두번째 도전하는 3선의 이강래 의원은 '대안 있는 강한 야당'을 모토로 재도전에 나섰다.

전북 출신으로 범 정동영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주류-비주류 대결구도가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균형있게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충청의 홍재형 의원과 수도권의 이석현 의원 등도 원내대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

'신종 플루' 국내 소강…유럽 확산

조사대상 10명으로 줄어

전세계 확진 환자 999명

한 여성 경찰관이 4일 홍콩의 메트로 파크 호텔 입구에서 마스크를 쓴 채 경비를 서고 있다. 이 호텔은 지난 1일 약 7시간동안 머물렀던 한 멕시코인 방문객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N1H1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후 봉쇄조치가 취해졌다. /연합뉴스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에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4일 우리나라에서는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된다고 본인 또는 보건 당국이 판단하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검사를 받던 28명 가운데 18명이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전날 밤에는 단 1명의 단순 신고 접수도 없었다.

신종플루 감염환자로 처음 진단됐던 50대 수녀(51)는 4일 국군수도병원에서 나와 수녀원으로 복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0시 현재 28명의 조사·검사 대상자 가운데 1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사 대상자는 10명으로 줄었으며, 감염자 1명, 추정환자 2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감염 의심 신고를 한 환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세계 보건당국에 따르면 유럽과 북미에서 추가로 감염 확인 사례가 발견되는 등 전 세계에서 최소 999명의 확진 환자가 보고됐다.

멕시코에서는 이날까지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는 22명이었고 감염 확인 사례는 568명으로 집계됐다.

호세 앙헬 코르도바 멕시코 보건장관은 이러한 결과가 1천523명의 검사대상자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확인된 것이라며 "점차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신종플루로 입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증상도 심각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도 이날 감염 확인 사례 1건이 발견된 가운데 남미에서는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와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 결과 이날 현재까지 34개 주에서 244명의 신종플루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와 CDC, 각국 보건당국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현재까지 101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또 스페인 40건, 영국 18건, 독일 8건, 뉴질랜드 4건, 이탈리아,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이 각각 2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홍콩,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연합뉴스

DJ 방중…오늘 시진핑과 첫 회동

중국을 방문 중인 김대중(사진)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베이징에서 차기 지도자로 유력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과 처음으로 회동한다.

4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김 전 대통령측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방문 이틀째인 5일 오후 시진핑 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한·중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 6자회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시 부주석이 한국측 지도자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한 시 부주석은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 100인에 포함됐고 지난해 6월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도 면담한 바 있다. /연합뉴스

청해부대, 소말리아서 北 상선 구조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호송 작전을 펼치고 있는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이 4일 오전 북한 상선을 구조하는 개가를 올렸다.

합참은 이날 문무대왕함이 아덴항 남방 37㎞ 해상에서 북한선적 6천399t급 화물선 '다박솔(DABAK SOL)' 호가 해적선으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긴박한 구조신호를 포착하고 링스헬기를 긴급 출격시켜 50분만에 해적선을 퇴치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5차 호송임무를 마치고 아덴항 인근 국제권고통항로 상에서 감시·정찰활동을 하던 문무대왕함에 북한 다박솔호의 "해적으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긴급 호출 신호가 포착됐다.

문무대왕함은 신호를 포착한 지 10분 뒤인 11시50분께 링스헬기를 출동시켰고 링스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저격수들이 해적선을 향해 사격자세를 취하자 해적들이 혼비백산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날 우리 군의 작전은 한국이 북한상선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해준 첫 사례로 기록됐다. /연합뉴스